

# Daily Auto Check

2021.1.12(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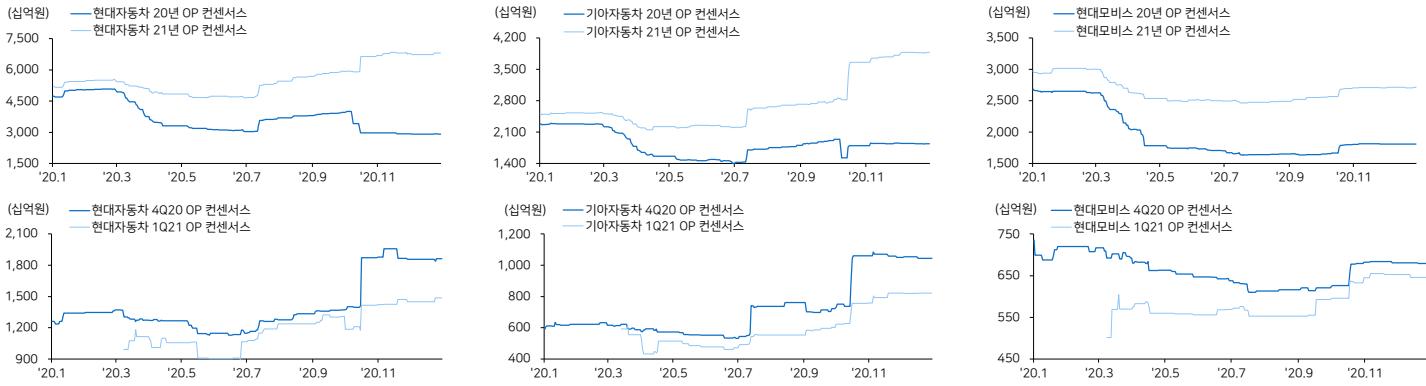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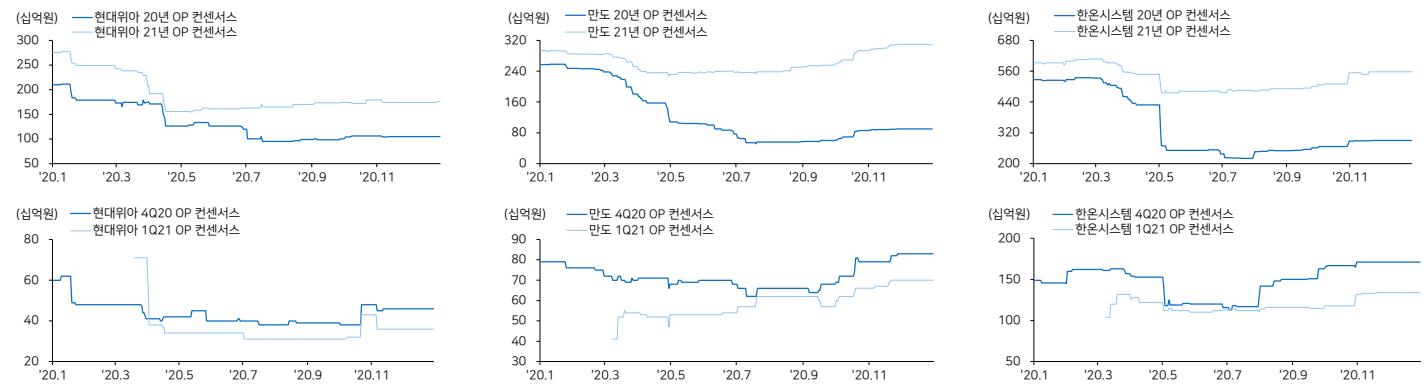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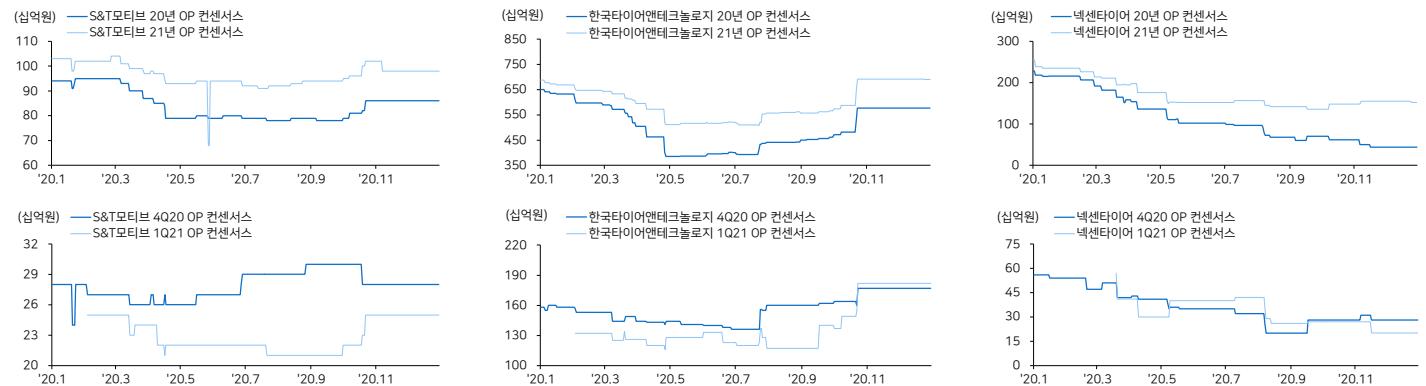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amp;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엘란트라, '북미 올해의 차' 정상에 올라(더글루)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가 북미 북미 최고 권위의 '올해의 자동차' 정상에 올랐음. 북미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현대차 엘란트라가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2021년 북미 올해의 자동차 상을 수상했다고 밝힘.  
<https://bit.ly/3bvWx8D>

## 현대·기아차, 인도 SUV 시장 1위...2대 중 1대' 플(파이낸셜뉴스)

현대·기아차가 인도 SUV 시장을 석권.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SUV 합산 판매량이 전년대비 45.6% 증가한 총 31만532대로 SUV 시장 점유율이 1년만에 28.7%에서 44.6%로 급상승. 인도에서 판매된 SUV 2대 중 1대는 현대·기아차 SUV였던 셈.  
<https://bit.ly/2LqJkn9>

## 현대차, GBC 105총 접고 '50총·3개동' 신축 가닥(대한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총·1개동'에서 '50총 규모·3개동'으로 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서울시와 물길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정의선 회장은 '상징성' 대신 '경제성'에 보다 확고한 방침을 짜았음.  
<https://bit.ly/2K4tgk9>

## 중비아, 자리자동차와 스마트 전기차 만든다...시장 요청(이데일리)

중국 최대 IT업체 중 하나인 바이두(百度)가 전기차 사업 진출을 선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놓고 기존 자동차업체와 신생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  
<https://bit.ly/2MX1GMX>

## "제네시스, 올해 미국서 3만대 이상 판다"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보낸드 첫 SUV GV80과 대형세단 G80 등 신차 라인업을 앞세워 미국 시장 최대 판매량에 도전. 마크 멀로스 제네시스 북미 담당 최고경영자(CEO)는 올해는 지난해의 판매량의 두배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https://bit.ly/2MUGJSS>

## 기아차 새 임블럼...어느 차에 먼저 장착될까(파이낸셜뉴스)

기아차가 지난 6일 새 로고를 공개하며 차량의 임블럼도 바뀌게 됐음. 올해 차량을 인도 받을 예정인 고객들은 새로운 임블럼이 적용되길 원하지만 생각 보다 기준은 까다로움. 최소한 폰이스리프트급의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임블럼을 부착할 계획.  
<https://bit.ly/3nBqeH>

## 코로나 확진...현대차 아산공장 오전조 가동중단(파이낸셜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1조(오전조) 가동이 중단. 11일 현대차 아산공장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오전 6시 45분부터 3시 30분까지 라인 가동을 중단. 아산공장에서는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  
<https://bit.ly/3nIvcY5>

## 엔비디아, 자동차 타고 달린다...현대차 이어 中 니오파 협력(디지털데일리)

엔비디아가 완성차업체와 협업을 이어간다. 자율주행 전기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짐작되었음. 11일 엔비디아는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파의 차세대 제품에 '드리브 오션' 시스템온칩(SoC)을 채택해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힘.  
<https://bit.ly/38A3rYR>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